



교무금의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주세요.

교무금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른 교회의 법입니다. 따라서 교무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주신 ‘열 개’가 감사해서 그 중에 ‘하나’를 바쳐 올리는 믿는 이의 신앙고백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땅의 십분의 일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레위 27,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신의 수입에서 십분의 일을 봉헌하도록 권합니다. 사실 교무금은 하느님께서 사회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사용처와 쓰임새까지 지적해 주신 하느님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교무금을 미루거나 책정하는 액수조차 그저 푼돈정도(부담이 되지 않아야한다는 생각에서)로 책정하는 일은 그롭니다.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일을 기쁘게 행하였던 다윗은 “저희가 준비한 이 많은 것은 다 당신 손에서 받은 것으로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1역대 29,16)라고 고백하였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권장하는 삼십분의 일이란 교무금에 관한 한 너무나 어린아이 같으신 교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드린 하나의 방편일 뿐, 전혀 하느님의 뜻과는 동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옳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참, 하느님께서는 교무금에 충실한 신앙인을 위해서 특별한 약속을 하셨지요. 말라키 3장을 꼭 읽어 보십시오. 아울러 축복도 한껏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곤소곤 이렇게 설명하세요』, p.92~93, 장재봉 신부 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samok.cathms.kr>

불쌍한 이의 기도

(시편 86,2-5, 9-11)

시작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89장 ‘주 하느님 자비로이’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주소서.
-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주님,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사랑이 가득 차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86편 2절에서 5절,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86, 2 제 영혼을 지켜 주소서.
당신께 충실한 이 몸입니다.
당신은 저희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는
이 종을 구해 주소서.

- 3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으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4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리니
주님, 당신 종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 5 주님, 당신은 어지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크십니다.
- 9 주님,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드리리이다.
- 10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니
당신 홀로 하느님이십니다.
- 11 주님, 제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의 진실 안에 걸으오리다.
당신 이름을 경외하도록 제 마음을 모아 주소서.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을 나누어 봅시다.
- 하느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느님과 대화’, ‘영혼의 숨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화한다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며 일방적인 통보나 협박, 흥정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상호 통교로써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자주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 없이 내 말만 하고 그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미처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고자 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향과 믿음을 가지고 청하고 보채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 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기도보다 여럿이 함께하는 기도가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결코 머릿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 의합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 사람이 한 마음 되는 것보다 때로는 두 사람이 한마음 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기도를 ‘영혼의 숨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신앙인으로서 죽은 것입니다. 영혼의 숨결을 유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정성을 다해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바른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특별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저 단순한 말로 청하여라. 무엇인가 다른 것을 청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것을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단순하게 바라는 것을 청하고 “다만 내 뜻대로가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라고 말해야 합니다.¹⁾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날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91장 ‘구세주 빨리 오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1) 청주교구 반영역 신부글 발췌(레지오 혼화 중에서)

| 진주 가톨릭의 산실 |

- 옥봉동본당 4구역 4반 반장 정수덕 실비아 -

옥봉동본당은 문산성당 소속 옥봉공소로 지내오다 1926년 5월 10일 진주본당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일제의 천주교탄압이 극심했던 중에도 “조선의 우수한 도시 중의 하나인 경상남도 진주읍은 비록 복음의 씨를 비교적 늦게 받은 셈이나 진리에 목말라 옥봉정(玉峰町) 천주의 성전을 찾아드는 자의 수효는 나날이 증가하여 주일마다 성당을 초만원에 이루어 새로 찾아오는 무리들은 안내할 자리가 없었다.”는 기록에서도 보여지듯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어나갔습니다. 1967년 현재의 옥봉동본당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오랜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신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혼신의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옥봉동본당 소공동체는 5개 구역, 12개 반으로 미사참례자는 380명 정도입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구역장 모임을 하고 월 1회 반모임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활동으로는 이웃 돌보기, 혼자 계시는 어르신 돌보기, 복음 전하기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 신자들이 인근 신도시나 혁신도시로 전출을 가게 되어 신자수가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성령세미나, 성경통독, 성경공부 등을 통해 스스로 복음화 되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4구역 4반은 열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이 70~80세로 높은 편이지만 열정을 가지고 모임에 참석합니다.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 활동하기도 좋습니다. 반모임을 하고 난 후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우리 반의 특별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심을 다져나가기 위해 성경읽기, 성경쓰기 등을 열심히 하셔서 주교님 축복장도 다섯 번이나 받으신 분도 계시고 성경완독 축복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반장을 맡아 온 저에게 ‘한 번 반장은 영원한 반장’이라고 하면서 늘 격려해주시는 반원들 덕분에 다함께 웃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랑과 따스한 정으로 하나 된 4구역 4반이 성모님의 미소를 닮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청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당 소성전 공사도 잘 마무리 되어 교우들이 함께 모여 기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주길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